

# 여성취업난이 부른 자화상

## ① 대학원 진학

“스펙 쌓고 학력 높이자”  
여성 진학이 남성 추월

광주 사립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김모(여·27)씨는 지난 2012년 졸업한 뒤 연봉 1600만원을 받고 모교 계약직 제안을 받은 뒤 선택을 했다.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단 익숙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1년 뒤 다른 민간 기업이 자리를 옮겼지만 예전 학교의 편한 분위기와 사모 달라 대학원 진학이나 이른바, ‘취직’을 고려중이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 남성을 선호하는 기업 문화와의 경쟁까지 치러야 하는 여성 취업준비생들의 특색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원을 택하거나 다니던 학교에 조교로 눌러앉은 여성들이 급증하는가 하면, 시집도 취직이라는 의미의 ‘취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광주 4년제 대학의 지난 2월 졸업자(2013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모교 취업자는 374명으로 이들 중 71.1%인 266명이 여성으로 조사됐다. 전문대학도 비슷해 모교 취업자 100명 중 63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호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남성 취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률은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때문에 모교 여성 취업자 증가는 극심한 취업난에 일단 일자리 먼저 구하고 보자는 식의 조급함이 강해 대학 조교나 행정 사무보조원 등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여성들을 반영한 통계라는 지적

## ② 모교에 취업

조교·행정직 단기 취업  
10명 중 7명이 여성



■ 광주 2013년 취업 현황

|              | 여성       | 남성       |
|--------------|----------|----------|
| 취업자수         | 30만8000명 | 40만1000명 |
| 고용률          | 48%      | 66.6%    |
| 2014년 취업률 증가 | 0.7%p↑   | 6.1%p↑   |

(자료: 호남지방통계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전남대 졸업생 대학원·타대학 진학

|       | 여성   | 남성   |
|-------|------|------|
| 2012년 | 172명 | 195명 |
| 2013년 | 214명 | 174명 |

## ③ 차라리 ‘취직’

‘취직+시집’의 합성어  
구직 포기 쫓기듯 결혼

이 많다. 대학도 졸업생 취업률 등을 감안해 조교·인턴 등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년도 분고 졸업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대학원 진학도 두드러진다. 더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순수한 의도 외에 다른 직장으로 갈아타기 위한 이력을 쌓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해 대학원 진학자 중 여성(214명)이 남성(174명)보다 22% 많았다. 전년도에도 172명에 이르는 등 대학원을 택하는 여성들은 꾸준하다.

여기에는 여성 취업의 높은 장벽을 반영한 ‘취직족’도 생겨나고 있다. 구직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20대 여성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채용정보사이트 인크루트의 20~30세 여성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취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5.7%(690명)에 달했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가 29.6%(204명)나 됐고 ‘취직하고 결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16.2%(112명)를 차지했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30만 8000명으로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는 4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여성 고용률은 48.0%, 남성 66.6%로 여성이 18.6%p 낮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폐휴대전화 많기도 많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5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주민 등으로부터 수거한 폐휴대전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폐휴대전화기엔 금·은·구리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 들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자녀·친척 사립학교 함께 채용...비위 의혹 조사

광주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와 친척이 같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돼 비위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가 있는 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자녀와 친척이 같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광주교육청은 A씨가 자신의 자녀와 친척을 해당 학교 교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재단 측에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 자녀와 친척이 같은 학교에 채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며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조사가 마무리되고 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자녀와 친인척의 학교 교직원 채용 현황과 채용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유병연 장남 대군씨 징역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연(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군(4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총 1000억원대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들에게도 징역형이 무더기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회장의 형 방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 화장장 실수로 조상 유골 뒤섞여

○→목포의 한 화장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조상의 유골이 뒤섞이는 황당한 일이 발생.

○→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정모(43·광주시)씨는 지난 2일 나주에서 할아버지·할머니·어머니·아버지·둘째 고모·셋째 고모 등 유골 6기를 수습한 뒤 목포시립화장장에 화장을 의뢰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유골함 5개만 받았다는 것.

○→한 기의 유골함을 받지 못한 그는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6기의 유골 중 2기가 직원의 실수로 뒤섞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정씨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됐다. 앞으로 조상님 영정을 어떻게 볼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공연음란’ 김수창 전 지검장 처벌 시민에 묻는다

### 광주고검 10일 시민위 회부

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까. 검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의견을 시민들에게 묻기로 해 결과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제주지검이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심의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요청해 오는 10일 오전 위

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국 검찰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지검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 재직 당시 위촉된 점을 감안,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 비리,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며 시민위원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검찰은 시민위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위원의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동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추석 선물 관련 수사

광주 동구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다시 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이면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5일 오전 수사관들을 동구청에 보내 동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총무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2시간 30여분 동안 컴퓨터 파일, 청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구청장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과일 등을 선물했다는 내용으로 광주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청장이 예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안된 상황에서 검찰 압수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다시 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이면서다. 한편, 노회용 동구청장은 지난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물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2억8천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2억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11월초 상무지구

최고급 시설로 상무지구 중심 학원가에 오픈합니다!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최고위반 운영

경매 교육후 바로 경매 실전경험으로 수익발생할수 있음!!

경매 교육에서 낙찰, 건축, 리모델링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

한국경매학원(상무점)

010-6670-2600 / 062)382-5500